



## 디지털카메라의 현황

디지털카메라는 필름대신 CCD등의 촬상소자를 사용해 정지화상을 기록한 카메라로 디지털스틸카메라라고도 한다.

디지털카메라의 대략적인 구조인 렌즈와 바디는 은염타입의 카메라와 거의 같지만 광을 기록한 필름부분이 초소형의 촬상소자(CCD등)라는 기록매체(내장메모리, PC카드 등)로 바뀐 것이 큰 특징이다.

화상을 디지털신호에 교환해 기록한다는 구조로 말하면 차라리 디지털비디오 카메라의 편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큰 이점은 카메라에 부속하는 액정 모니터 등 TV, PC에서 촬영한 영상을 현상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간편성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화상데이터를 PC에 옮겨서 열화도 없이 간단하게 화상가공하는 게 되는 디지털만의 확장성에 있다.

PC의 보급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는 스캐너 등과 함께 화상을 입력하는 가장 손쉬운 장치로서 몇년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화질성능은 탑재한 촬상소자의 화소수에 크게 관계하고 있다. 화소수가 크면 화상의 계조, 해상도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고화소수=고성능디지털카메라라고 한다.

이러한 촬상소자의 화소수의 차이에 의해 디지털카메라의 제품층은 200만화소에서 5000만화소레벨의 고가

의 프로용 디지털카메라와 100만화소이하가 주류인 퍼스널 디지털카메라의 2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

실제 최첨단을 향하는 프로용 디지털 등에서는 이미 해상력에서 은염사진을 초월해 디지털만의 취급용이와 더불어 광고사진 등의 비즈니스분야에서 지금부터 주류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해진다.

한편, 최근의 퍼스널 디지털카메라에 있어서는 제품경쟁도 이 화소수의 우열이 큰 팩터로 되어있다.

은염사진에 비해 화질이 나쁘다고 말해진 35만화소를 중심으로한 퍼스널 디지털 카메라도 화제의 메가픽셀기(100만화소레벨)에도 이동변화하는 것이 97년의



## 세계리포트

제품동향이다.

이것은 퍼스널레벨에서도 착실하게 고화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촬상소자라고 말하면 CCD타입이 메인으로 있지만 소형, 소전력화를 진행하는 새로운 촬상소자 CMOS 타입이 개발되는 등 촬상소자 자체도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신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디지털카메라의 미래는 이러한 촬상소자도 포함해 다른 데에도 기록매체나 데이터통신 등이 주도한 기술동향에 크게 지배를 받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화상데이터는 기록매체에 기록된다. 기록매체는 내장플래시메모리의 다른 교환가능한 PC카드로부터 스마트미디어(SSFDC), 콤팩트플래시카드라고 하는 소형기록미디어로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각종소형미디어는 카메라본체의 축소화나 화상데이터의 전송성, 메모리자

체의 코스트파페먼스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만 과도기라고도 말해지는 현재 각 소형미디어는 다종다양으로 같은 형상에서도 규격전압이 다른 등 그 규격은 혼재해 있다. 이후 기억용량, 아답터 등의 사용승수의 차이에 비해 결국은 표준화되어갈 것이다.

또한 디지털카메라에서는 기록한 영상데이터를 목적으로 응해 출력하는 것이 시스템의 전제로 되고 있다.

TV에 출력하는 것으로는 비디오출력소자 PC나 프린터에 송신하는 데에는 시리얼 파라렐, SCSI접속 등 시간이 걸리지만 화상을 1장씩 송신하는 것이 종래보다 일반적이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은 소형 기록미디어를 채용한 기종도 증가된 것으로 PC 카드아답터, 플래시파스 등의 아답터를 소개해 소형기록 미디어 등 전부의 화상데이터를 직접 PC로 읽어내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송신시간이나

케이블접속의 번거로움없이 편리하다. 게다가 IrDA, IrTran-P하는 총합규격의 적외선통신기능을 준비한 카메라가 계속 발매되는 등 데이터송신을 둘러싼 신기술의 화제도 먼 얘기가 아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기술향상도 눈에 띄지만 가격의 저하도 또한 가속도적이다. 실제 하이클래스에 분류되었던 81만화소클래스의 디지털카메라가 1년도 안되서 8만엔대까지 가격을 내려 화제가 된 신형의 메가픽셀기도 같은 8만엔으로 등장했다.

이것도 디지털카메라기술의 진보와 급속히 확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한 현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단기간에 가격이 변동한 카메라라는 과거에 없었다. 이것도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참고 : 「카메라연감 '98」  
일본 카메라사